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신근

여름계절학교 막올라

6월 6일, 사랑부·새가정부·영어교육부 시작으로
7, 8월까지 계속, 주로 충현기도원 이용

하절기를 맞으며 각급 교회학교의 여름
계절학교의 막이 올랐다. 금년에도 교회학
교 전 부서가 여름철을 맞으며 특별 신앙훈
련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여름계절학교는 특별 신앙훈련과 함께
보충 교육의 의미가 다분히 있기에 잘 활용
하면 교회학교 운영과 발전, 각 개인의 신
앙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 일을 위해 각 부서는 이미 연초부터
장소와 강사를 협의하면서 준비해 오고 있

는 중이다. 또한 이제는 상반기에 드러난
각 부서의 입장들을 고려하여 계절학교를
통해 보완할 점을 보완하고 강조할 점을 강
조하면서 하반기 교육을 위한 하나의 이정
표로 삼아야 될 것이다.

금년도 여름계절학교는 사랑부와 새가
정부, 영어교육부가 6월 6일 시작함으로 시
작되는데 예년과 같이 국민학교 5학년까지
는 주로 교회당에서 하고 초등6부부터는 충
현기도원을 이용하게 된다. 강사는 주로 내

부강사로 짜여져 있다.

새가정부는 6월 5, 6일 충현기도원에서
새가정부 지도 박정규 목사를 강사로 '장래
에 소망이 있는 가정' (렘 29:11-13)이란 주
제로 제11회 새가정부 하기수양회로 모인
다.

사랑부는 6월 6일 교육관 107호실과 그
주위 집회실에서 사랑부 지도 임성한 목사
를 강사로 모시고 '지혜로운 어린이'라는
주제로 교사 100명, 학생 150명의 참가 대
상자를 놓고 제6회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로
모인다.

영어교육부는 6월 6일 경기도 평주에
있는 구림농원에서 학생 120명과 교사 20명
을 대상으로 여름성경학교로 모인다. 주제는
'The joy in God Creation'이며 강사는
노봉린 목사이다.

이어서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계절학
교를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격려하는 일들이 풍성해야 할 것이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 출국 베트남, 5월 30일 ~ 6월 4일까지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해외 '사랑의
빵' 사업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5월 30일
(월) 출국하여 6월 4일(토) 귀국할 예정이
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이번 출국은 사
회복지법인 한국선명회(회장, 이윤구)가 사
랑의 빵 후원금을 베트남(하노이, 대낭, 호
지민시)에 전달하는데 함께 동참하여 현지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현지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런 목적 외에도 베트
남의 선교적 상황과 환경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권사회 수련회 5월 30일, 31일 양일간

권사회 수련회가 5월 30일(월), 31일
(화) 양일간 교회당 갈릴리움에서 모인다.

권사회의 활성화와 명적 갱신을 위해 모
이는 수련회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주제로
모이게 되는데 주강사는 윤영탁 목사(협동
목사, 영어교육부 지도)이다.

30일(월)과 31일(화) 이틀간에 모이는
수련회의 첫날은 김창인 원로목사가 개회예
배를 인도하고 이어서 윤영탁 목사의 주제
강의, 예능인교화 윤신재 집사의 간증, 레
크레이션, 각 지교회 나누어 회원 찬양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단합과
친목을 도모할 계획이다.

5월 21일, 논산훈련소에서

3,120명에게 진중세례

전도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토) 논산훈
련소에서 진중세례식을 베풀었다. 김창인
원로목사를 위시하여 부목사 21명과 장로
23명, 군전도회 회원 51명 등 164명이 함께
하여 세례식을 거행했다.

오후 2시 논산훈련소 연병장에서 열린
세례식에는 앞서 열린 예배에서 전도위원장
김재명 장로의 기도예 이어 김창인 원로목
사는 마태복음 28:19-20을 본문으로 '세례
는'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설교에서 김
창인 목사는 세례의 의미와 세례를 받는 자
의 마음자세 및 이 세례가 주님 오시기까지

행해지는 주님의 명령임을 강조하며 세례
받은 자의 생활에 대해 설교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순서도 가졌는데
이날 21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집례하여
3,120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감격적인 세례
식이 거행되었다. 군전도회는 이번 세례식
을 위해 5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예배시
찬양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왔다.

(사진은 진중세례식 예배에서 설교하시
는 김창인 원로목사)

윤영탁 목사, 미국 제네바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 취득

오늘 새가정부에서, '모범적인 가정' 특강

우리 교회의 협동목사인 윤영탁
목사(합동신학교 교장)가 지난
5월 15일 미국 제네바 대학
(Geneva College)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848년에 개교한 제네바
대학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비버
폴즈(Beaver Falls)에 있는데
1,000여명이 넘는 학생이 재학중이며 미
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전통
있는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미국의
제도급 신학자들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
여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전교회
교수인 칸하베(Havie Conn) 교수도 이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윤영탁 목사는 학생 때부터 우리 교
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했고 초대 장
년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미 학
생시절부터 신학의 뜻을 두고 연세대 철
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 카바넬트

신학교를 졸업하고 드랴시대학에
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히브리 대학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기도 했다.

그후 귀국하여 동신대학
구약학 교수, 합동신학교 교
수를 역임하다가 지난해 합
동신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현
재에 이르렀다. 또한 교회대
에서도 청년부 지도, 새가정부 지도, 장
년부 지도, III부예배 영어통역 등 주로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부서에
새 섬겨왔다.

새로 이적자 교수(이대 음악대학)와 슬
하에 2년을 두고 있다.

관련 전교연 대장으로 열리는 '가정
세미나'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새가정부
초대 지도교역자로 10여년간 새가정부를
키워 온 윤영탁 목사가 '모범적인 가정'
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한다. 장소는 교
육관 202호, 시간은 오전 11시이다.



금주의 라시간 연속기도-18교구

지난 2월28일에 시작한 34년 역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는 금주에는 29일 주일 12시
부터 6월 3일 금요일 12시까지 18교구, 금요일 12시부터 19교구가 아어서 하게 된
다.

1.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첩한 유대 지도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사형을 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재판받게 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는 합작으로 역사적인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머지 않아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여러 번 예언하신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넘겨 주니라"고 했고 9절에 "말씀이 이루어졌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던 바이고 또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라고 했습니다. 새벽이라는 말은 이제 해가 막 떠오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는 '밤에 결정한 사형언도는 무효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합법적으로 가장하려고 새벽에 함께 다시 모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 총독으로 임명되어, 가장 골치가 아픈 이 유대지역에 와서 총독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섯번째 총독인 그는 성격이 굉장히 잔인하고 외골수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무죄한 줄을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인기와 영합하다가 결국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그는 돈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고르반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바친 많은 돈들을 훔쳐서 수도가설비로 유용을 했고 또 나쁜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데모를 하자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며 많은 양민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원성이 드높게 되었고 마침내 주후 36년, 그는 로마 황제에게 소환이 되어서 남프랑스에 귀양살이를 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최후입니다.

유대인의 인기 중심의 정치를 하던 빌라도의 비참한 모습,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간 중심, 인기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를 할 때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2. 가롯 유다의 비참한 최후

인간의 가치와 평가는 죽은 뒤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관두경 단아 봐야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야말로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는 시작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의 실수는 순간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3:11)고 권면합니다.

(1) 가롯 유다가 받은 은혜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습니 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 열두 대문이 있는데 그 열두 대문 위에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된다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 줍니다. 셋째로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권능을 친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계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 받게되는 상급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받는데서 끝나면 안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감당할 때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2) 가롯 유다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

첫째로 그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뿐만 아니라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의 책망을 불쾌하게 생각한 것입니다(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충현강단



가롯 유다의 최후

(마 27:1-10)



신 성 중

<목사·담회장>

때). 셋째로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체제 좋을 뻔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들 다 "내니까? 주님을 팔자가 내니까?" 하면서 근심이 되어 질문했지만 가롯 유다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얼굴도 붉히지 않았습니다.

(3) 가롯 유다가 망한 이유

우리는 망해서는 안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망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본문 5절과 사도행전 1장 18-20절에 보면 그는 목매어 자살을 했는데 그냥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배까지 터졌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결과입니다.

첫째로 가롯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너희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그때 그가 회개했다면 아마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최소한 지옥의 비참한 결과를 맛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다가 망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탄마귀는 각각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는데 가롯 유다에게는 물질을 좋아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셋째로 가롯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불신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속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신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못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은 믿어야 하는데 가롯 유다는 그것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3.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로 아무리 자신이 지은 죄를 후회하고 뉘우쳐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회의 은총을 받을 수 없음을 교훈합니다. 가롯 유다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백번 후회하고 뉘우쳐도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회의 은총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롯 유다의 잘못은 주님을 배신한 것도 큰

잘못이지만 자살한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딤후 6:10)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본문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의 종이 되면 돈에게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 속에 근심이 꼭 차서 근심에 짓눌리고, 염려에 짓눌리고, 고민에 짓눌리고, 그래서 그만 마음속에 고통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이용하는 돈의 주인이 되어야 돈의 종이 되면 안됩니다.

넷째로 죄로 얻은 돈은 가롯 유다의 경우처럼 개인에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주님의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깨끗한 돈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번 그 돈이 가롯 유다에게 저주와 재앙이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악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처음에 물리쳐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생각,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듯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이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생각이 탁 지나간다고 해서 금방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이 내 머리 속에서 둥지를 틀고 이것이 행동화 되면 이것은 마치 잠초처럼 점점 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한 줄로 알고 꼭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것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이 주신 것, 특별히 금보다 귀한 믿음의 가치를 알고 굳게 잡아 세상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대 거짓말

근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말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네 가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짓말이다. 첫째로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짓말이다. 만약 빨리 죽으셨으 했다가는 난리가 난다. 둘째로 장사꾼이 '순해보고 갑니다' 하는 거짓말이다. 셋째는 노년자들이 '나는 시집 안갈거야, 나는 독신주의자야' 하는 것도 짝을 못 만나 그렇지 거짓말이다. 넷째로 목사들이 '뭐 교인 숫자가 중요하냐?' 하며 무관심해 하는 것도 사실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일 뿐 거짓말이다. 물론 이런 거짓말은 들어도 해가 없어 좋다. 그러나 때때로 생각없이 벨라넬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를 입는가? 우리의 혀를 감돌려, 아로새긴 온정반에 금사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창조해가야 하리라

글 / 신성중 목사

가정의 달에



결혼의 목적과 그 준비

현 상 민

(목사, 찬양위원회·청년 1부 지도)

루터는 가정생활을 일컬어 '성품을 훈련시키는 학교'라고 했다. 우리는 결혼이 쉽거나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된다. 현대 사회에 대두된 많은 요인들 예컨대 물질적 풍요와 유동성, 여권의식의 신장은 '죽음이 서로를 갈라 놓을 때까지' 한 아내 한 남편과만 해로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 변화와 긴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 비현실적이 되어서도 안되며 그렇다고 단순한 전통주의자가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성경이 결혼과 가족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하며 그것을 변조함에 있어서 오직 성경에만 의지해야 한다.

1. 결혼의 목적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출발점은 창조이다. 즉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인격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격성은 그분의 '다양성'을 떠나 이해될 수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person)이시다. 인격체는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로 인격체들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인격체는 다른 인격체들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필요성과 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남자와 여자는 모두 그 본질상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며 엄격히 말해서 다른 인격체들 없이는 그 어떤 인격체의 존재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조차도 셋이 하나로 되어 있는 분이시다. 남자와 여자는 자신의 형상대로 그 둘을 만드신 분인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서 최상의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이다.

창세기 2:24; 마태복음 19:5; 마가복음 10:7,8; 에베소서 5:31은 결혼에 관한 성경구절이다. 이 말씀은 완전한 인간과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목적을 나타내준다. 어느 씨대를 막론하고 이상적인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니라"(창 2:24)

(1)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제체 놓는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제체적으로 멀리 떠나야 된다는 것도 아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뜻은 부모와의 관계가 극히 변해야함을 의미한다.

첫째, 부모와 성인으로서의 관계로 성립되어야 한다. 둘째, 부모의 생각, 견해, 행동보다 배우자의 그것들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셋째, 무조건 부모에게 의지해서는 안된다. 넷째, 부모가 배우자의 생활방식을 싫어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그만 두어야 한다. 다섯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른 어떤 관계보다 우선 해야 한다.

결국 남자와 여자의 전적인 위탁(Commitment)이 이제는 부모에게서 남편과 아내의 것이 되기 위해 성격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연합할 것을 지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굳게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여기에서 '연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함께 단단히 접합하다(아교처럼 붙이다). '둘이 양편 모두에 손상을 끼치지 않고는 분리될 수 없도록 함께 결합시키다'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맹목적인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신중히 선택해야 할 일이며 결혼은 단순히 편리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다. 절대로 운명적인 문제가 아니며 얼마만큼 결혼을 위하여 노력할 마음과 결심이 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성경적 결혼은 감정이나 동물적 본능 이상의 의지적 서약에 근거한다. 말라기 2:14; 잠언 2:17에 의하면 결혼은 취소할 수 없는 언약이며 계약이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서로에게 충성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이 똥똥해지고, 대머리가 되고, 발가락에 무좀이 피고, 뚱수 높은 안경을 쓰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직업을 잃고 매력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또한 남편은 아내가 아름다움과 매력을 잃게 되고 갈끔하거나 단정하거나 순종적이지 않을지라도 남편과 아내에게만 충성할 것을 맹세해야 한다.

(3) 한 몸을 이루는 것

수치감 없는 친밀한 육체적 연합을 포함한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의 하나됨을 의미한다. 남편과 아내간의 성교에 대한 성경적 표현은 심오한 존엄성의 표현인 '안다(to know)'로 표현한다. 이 '안다'는 단어는 창세기 18:19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정을 갖고 인격적으로 아심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다. 그러므로 성교는 친밀한 육체적 윗과 부드럽고 친밀하며 인격적인 얹 모두를 포함하며 그 래므로 떠나고 연합하고 서로를 아는 것은 두체인에 마음, 생각, 육체, 영혼 안에서 하나로 융합되어 새로운 사람을 이루게 한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결혼행위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의도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데 그들의 육체, 소유물들, 생각들, 재능들, 문제들, 성공들, 고통들, 실패들까지 나누어야 한다. 둘째로, 남편과 아내는 한 팀이다. 한편은 무엇을 하건 다른 한편을 위해서 해야 하며, 적어도 다른 한편을 희생시켜선 안된다. 각자는 상대방의 필요들을 자신의 필요들처럼 관심을 가지고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로, 그러나 완전한 친밀성과 깊은 연합이 둘다 확고적으로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는 여러면에서 매우 다를 수 있다. 다양성을 반드시 인정하면서 서로가 양보하면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실수없이 짝을 찾으려면

(1)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내적 음성에만 매달리는 것은 잘못이다. 즉 성령에 의한 내적 감동과 지도를 받는데만 의존하는 인도 방식은 명백하게 비성경적이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 세워놓은 한계성을 넘지 않고 그 한계선 내에서 인도한다. 앞서 말한 오류를 통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쉽사리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2)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전제 조건

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쇠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 헌신(롬 12:1-2; 잠 3:5-6)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

② 전적인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다.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우리가 기꺼이 기다리려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월이 내릴까 하면서 차내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그 기다림 속에서 더욱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재산을 준비시켜야 한다. 급히 서두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느긋하지도 말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물론 매우 힘들다. 하지만 결국 기다린 것을 기뻐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그 행편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3)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① 결정에 대해 기도하고 그 다음 당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성경 안에서 찾으라.

② 문제의 국면을 잘 살펴 보라. 사실

들을 연구하라. 머리를 쓰라. 당신의 결정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들을 고려하라. 문제의 양면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연구하라(구체적이 되어야 한다).

③ 상담을 구하라(잠 12:15).

④ 이상의 것을 모두 한 후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상식을 사용하신다고 믿는다. 이성적인 창조주께서 자신의 이성적인 피조물들을 인도하시는 기본 방식은 자신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와 적용을 통해서이다.

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자리를 기꺼이 남겨 놓으라. 실수없이 짝을 찾기 위한 방법적인 기술을 열거할 수는 있다. 또한 수많은 많은 책들이 그러한 기법 위주로 나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런 기법이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독특하고 다양한 개별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의당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먼저 알고 그분 뜻대로 사는 삶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필요하고 내게 도전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파고 들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혼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너무나 중요하고 심사숙고 필요한, 아니 당연한 부분이다. 우리 삶에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한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가 힘든 것처럼 결혼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결혼 생활도 그러하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다.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togetherness)가 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죄악 때문에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고통 당하고 좌절하기 일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깨끗이 해쳐나갈 것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맺으면서 결혼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혼에 대해 깊은 묵상과 함께 나의 모습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파설에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기독교적인 결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야심한다는 것이다. 그런 결혼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당신을 부르신 그 목적, 즉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을 돕는 적합한 배우자에게 때문이다. "구하라 주실 것임요, 찾으라 찾을 것임요, 두드리라 열릴 것임요"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솔리스트 찬양의 밤' - 6월 4일(토)

임마누엘찬양대는 오는 6월 4일(토) 오후 7시 나사렛홀에서 「솔리스트 찬양의 밤」 연주회를 한다.

「솔리스트 찬양의 밤」은 임마누엘찬양대가 솔리스트의 기량의 향상과 이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격려, 진정한 찬양의 시간을 갖기 위해 계획했다. 이번 연주회는 특별히 2,000원의 입장료를 받게 되는데 수익금은 전액 길림성 기독교신학원 건립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출연자와 출연곡은 다음과 같다.

· 소프라노
김은정/생명의 양식, 서로 사랑하자
박희성/주기도문, 나 주 위해 살리라
김희선/거룩한 성, 주기도문
윤지영/어지신 목사, Benedictus
정경숙/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눈 앞에 환히 펼쳐진(천지창조)

이경미/Alleluja,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 메조 소프라노
노효영/Agnus Dei(신의 어린양),
여호와 나의 목자
· 바리톤
김대수/주의 말씀으로 살리라,
눈 있어도 못 보았네
신동훈/주여 날 보내소서,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이규원/Dank sei Dir, Herr,
그 누가 나의 괴롬 알게
· 테너
안신욱/ 지치고 상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교회학교 고등부 제1차 미래지도자 운동

5월 29일~6월 26일까지

교회학교 고등부는 '전도와 부흥'이라는 주제로 제1차 미래지도자 운동을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한달 동안 펼친다.

'예수세상·미래지도자·충현고등부'라는 목표와 표어 아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있는 고등부는 94년도 제1차 미래지도자 운동을 통해 고등부 전체의 영적 각성과 갱신 그리고 전도를 통한 부흥을 계획하고 있다.

기간 동안에 학생들은 자기의 짝을 그리스도에게로, 교사들은 장기결석생을 교회로 인도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6월 19일을 총동원 주일로 하여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회에 속한 각종 소그룹들은 6월 26일 소그룹발표회를 가질 계획도 있다.

충현기도원 설립16주년 기념부흥집회

5월 30일~6월 2일까지

충현기도원은 기도원설립 16주년을 맞으며 이를 기념하는 부흥집회를 갖는다.

오는 5월 30일(월) 저녁부터 6월 2일(목) 저녁까지 모일 부흥회는 '기도로 새롭다'라는 주제로 모이게 되는데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와 기도원 지도 유창무 목사이다.

교통편은 충현교회당에서 매일 오전 9시 - 10시와 오후 6 - 7시 사이에 기도원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찾아갈 경우는 팽주읍에서 곤지암행 일반버스를 타고 대쌍리에서 내려 10여분 걸으면 갈 수 있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5월 30일(월), 6월1일(수) 충현기도원 설립 16주년 기념 성회 설교
6월 1일(수) 한국은행 강남지부 신우회 설교
· 신성종 목사 :
5월 30일(월) - 6월 4일(토) 한국선교회 사업장 방문(베트남)
2. 충현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부서들이 성수주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헌신자들이 되게 하소서.
3. 우리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분에서 부조리, 부정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문화제,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미신과 우상숭배를 조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이 사라지게 하소서.
4.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소서.
5.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그리스도의 편지를 발송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예수사랑 큰잔치 때 열매 맺게 하소서.

교구별 야외예배

사랑부

교사 및 학부모 세미나

각 교구의 야외예배 및 단합대회, 전도대회 등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다음주까지 모일 교구는 다음과 같다.

- 제5교구/6월 11일(토) 오후1시, 보라매공원
- 제9교구/6월 6일(월) 오전 11시, 태능뜰본동산
- 제11교구/ 6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고덕제7 근린공원
- 제17교구/ 6월 4일(토) 오후 2시, 울림공원 가족놀이동산

오늘, 새가족환영회

IV부 예배후, 교구별로

새가족환영회가 오늘 IV부 예배후 교구 모임 시간에 각 교구별로 있다.

이번에 대상자로 4월 17일 ~ 5월 21일에 등록한 새신자들로 여기에 해당되는 새신자와 인도자는 함께 참석하여야 한다.

청지기훈련 모두 마쳐

오늘 저녁 찬양예배는 수료예배로

94 충현청지기훈련이 지난 5월26, 27일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다.

4월 7, 8일에 시작하여 매주 3개교구씩 1박2일로 진행된 청지기훈련이 8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오늘 저녁 찬양예배는 청지기훈련 수료예배로 드려진다.

며려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만 75세를 맞았으나 고령도후서 4장 16절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결사같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하는 말씀을 느끼면서 매일 감사 찬송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감격할 때마다 더욱 사랑의 각오를 다짐합니다.

주님과 뗄려진 나의 충현교회의 평신도선교사 1호로 안수 파송하시던 김창인 목사님과 정도원들의 손길을 통한 뜨거움에 땀속 깊은 데서 머리로 올라와 얼굴이 빨갛게 됩니다.

지난 해부터 이곳 傳道所(가정예배 기도소)의 장년 후 3인이 되는 4월이후 주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까 우리 내외는 기도하는 중, 몇번이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믿고 작년 11월에 이력서를 냈다가 일자로 거절당했다가 2개월 후에 초청받은 춘천전도소에서 표까지 보내와서 편지까지 하고 1월 23일 주일 예배드리고 감사 헌금했는데 결과는 원로하여 최종 3인 남은 후보자 중에서 66세의 일인 의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는 3월 29일까지 3번이나 이러한 표

한 체험을, 하나님은 은사인 꿈이 수포가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결국 깨달으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성령님



● 일본 /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

자녀들을 통하여 선교주일 혹은 매 금요일 철야기도에서 부족한 종의 선교지 결정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오며 각 형제, 자매, 어린 중등부 선교위원 위에 천배나 축복과 은혜 주시기를 빕니다.

의 지혜가 먼저요, 꿈과 예언과 방법은 매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다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선교주일 혹은 매 금요일 철야기도에서 부족한 종의 선교지 결정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오며 각 형제,

로 미치지 않아 결정해 주실 줄만 믿고 찬송합니다. 사랑의 각오를 합니다.

일본에서 1월과 3월 동안에 동생이 사나와 1월 1회 운행하는 때리호에 결함이 많았고 일본교회 목사님의 대방도 날째관계로 없었습니다. 그외 결선자 야유평과 부인과

수선 성경강해 성도의 교제를 끊지 않고, 전료소 대기실 전도지와 개인전도를 계속하며 매일 위하여 기도와 찬송을 계속 중입니다.

1월 13일에는 육삼동에 사는 김은정 자매와 편지왕래를 했고 2월 25일에는 모교회 선교위원회, 작은그루터기 중등1부 교사 김영길과 중등 3부 교사 이강호, 학생 이은혜로부터 2차 위문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간 감사기도만 드리고 답장을 못했습니다. 대신 전배주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3월 3일 선교부 간사님과 국제전화로 박지민 봉사위원장 소천소식과 선교위원들도 받았습니다.

선교지 결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걱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곧 선교지가 결정이 나는 때로 연락을 드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유병세